



● 항공수요 증대를 통한 HUB공항 구현
● 공항운영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

가치창조

고객감동

인간존중

○ 완벽한 안전 및 보안체제 유지
○ 최상의 편의 제공으로 고객만족 실현

○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화합문화 조성
○ 인재육성과 구성원의 자아실현 지원

현실적인, 실질적인 체험교육으로 선진 안전관리체계의 정착 및 2단계 건설안전의 해로 거듭날 터

-인천국제공항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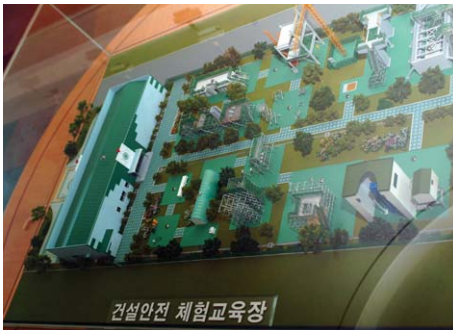


▲ 환경안전처 안전관리팀 차규백 팀장

중학교 시절, 수련회를 위해 배를 타고 영종도에 가 본 적이 있다. 영종도 선착장에 도착하여 버스를 타고, 또 한참을 걸어 도착한 목적지는 꽤나 서정적이며, 시골내을 나는 곳이었다. 과자 한봉지, 사탕 하나 사기 위해 한참을 걸었던 그때 그곳.

몇 년 전 그곳에 국제공항이 들어섰다.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를 매립하고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것이다. 이제는 배가 아닌 자동차에 몸을 싣고, 기럭기럭 갈매기를 친구삼아 새천년 세계 하늘의 새로운 중심, 2IC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급부상중인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운영을 통한 항공운송 원활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문을 두드렸다.

2000년대 수도권 항공수요처리 및 동북아의 중추공항으로써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된 인천공항은 활주로 2본, 여객계류장 38만평, 화물계류장 4만평, 여객주차장 60개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항공기 운항, 여객 및 화물 운송, 시설 운영 등 공항 운영 전 부문에 걸쳐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항공 수요 및 급변하는 항공 산업에 대비, 적기 시설을 확보하여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 주변 경쟁 공항과의 우위 선점을 통한 2IC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해 2단계 건설사업을 2002년 착수하여 2008년 완공 예정에 있다.

인간존중, 고객감동, 가치창조의 삼위일체를 통해 세계인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 공항,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일류직장을 꿈꾸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단계 건설 사업과 공항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몸소 느낄 수 있는 교육, 안전체험장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단계 건설사업의 위험복합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던 98년 건설재해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전시관, 교육관, 안전대 매달리기 등 21종의 시설을 마련하여 건설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작업이 장비로 수행되어 예전보다 위험 요소가 상당히 줄어들어 든 것은 사실이지만, 건설 현장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짐을 지적하여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 등 의식개혁을 위한 근로자들의 체험교육을 강조한 것이다. 이론적인 지식을 쌓고 개념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으로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게는 '건설안전수첩'을 소지토록 하여 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는 현장으로의 투입 자체를 금한다. 더욱이 금년 1월 29일부터 현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체험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하여 그에 대한 효과와 주목된다.

이는 99년 재해자 총 46명 중 교육이수자는 단 1명에 불과하였으며, 99년 12월 체험교육을 이수한 1,5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 이수 근로자의 95%가 안전의식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눈으로 확인되는 큰 결실로 나타났다. 이는 재해자 대부분이 교육미이수자임을 감안할 때 체험식 안전교육이 재해 감소에 기여하는바는 더욱 클 것이며, 의무화된 올해부터 교육의 기대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안전관리자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건설현장 안전관




리업무의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서로간의 정보 및 경험을 공유, 우수 사례는 모범이 되어 타 현장에 적용토록 하는 등 좋은 유대관계를 보이고 있다.

■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안전, 안전관리심의운영회 운영

인천국제공항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 보완함으로써 안전한 공항시설의 운영과 여객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 상주기관 및 상주업체, 유관기관 등은 안전관리심의운영회를 운영하고 있다. 반기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 연간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분야별 현안 사항 및 공항 안전관리의 이행실적을 평가, 분석, 검토함으로써 안전한 공항, 쾌적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항공 특성에 맞게 시설대책본부, 풍수해 대책본부, 방재 및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으로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시설 복구 및 공항운영 정상화와 최소한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완벽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의 발전된 선진 기술·장비 등의 도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한발앞선 선진 한국의 안전 모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을 선진 안전관리체계의 정착 및 2단계 건설안전의 해로 거듭나고자 한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바램처럼 이곳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안전관리가 산업재해를 저감이라는 결과로 표출되기를 기원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21세기 꿈의 공항으로 전 세계에 위상을 떨칠 그날을 상상하며 발길을 돌렸다. 

〈성호연기자〉

